

8천 여의우를 책임져 나갈

97년 4차

전교 여학생 대표자 회의

일시 : 반미항전 53년 3월 19일 5시

장소 : 공대 6호관 206호

주최 : 12대 자주 중여학생회

● 글 실는 순서

☆ 여는 시 / 1

☆ 종여학생회장 인사말 / 2

☆ 전여대회의 행사일정 / 3

☆ 97년 전여대회의 의의 / 4

☆ 97년 종여학생회 총노선

▷ 총노선 / 6

▷ 종여학생회 부서별 사업 계획서 / 15

☆ 이것만은 꼭

▷ 97년의 정세에 대하여

- 희망있는 사회는 청년이 투쟁할 때 만들수 있다 / 19

▷ 과여학생회는요? / 23

▷ 우리들의 조직 / 26

☆ 종여학생회 회칙 / 27

☆ 대의원 명단 / 31

여는시

꽃 들 6

문 부식

너무 보채지 마
이 땅의 꽃들 필 때되면 다 퍼

햇볕 바른 위뜰에
눈꼽같은 꽃씨 몇 개 묻어놓고
오며 가며 물 주면서
함성같은 꽃송이
달힌 하늘 열어달라 꿈꾸는 너

너무 서들지 마
이 땅의 꽃들 필 때되면 다 퍼

어디 한두 송이 일찍 핀다고
한꺼번에 아름다워질 조국 아나
눈물로 크고 피로 크고
눈물로 뜨고 통곡으로 자라며
때론 환희로도 자라며
돌에도 피고
네가 갇힌 창살에도 피고
산에도 피고 들에도 피면서

혹은 네가 걷는
도시의 아스팔투나 광장 한복판에도
피면서
이 땅의 꽃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이
척박한 땅에 실뿌리 박으며
필 때되면 다 퍼

진달래
개나리 창포꽃 분꽃
민들레 복숭아 살구꽃 호박꽃
유채꽃 제비꽃 자주달개비꽃 개망초꽃
원추리 동백까지 이름없는
들꽃까지
수만 가지 이 땅의 꽃들 마침내 다 퍼
서들지 않아도
보채지 않아도
끝끝내 자유로울 조국의 이름으로
갇힌 청춘아 싸우는 청춘아
너도 끝내는 꽃으로 퍼

㊤총여학생회 회장님의 인사말

마음이 너무나 추웠던 겨울을 지나고 새내기와 현내기들로 복원이 떠들썩합니다. 여러 새내기맞이 사업들로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전여대회에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의 여학생회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간담회를 만나면서 뵈은 과여장님들 또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여대회에 모여서 힘과 지혜를 모아 8천을 책임지고자 하는 여학생회의 97년의 방향을 내어오고 힘을 다진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따스한 봄햇살같은 길이 될 것입니다.

과에서부터 여학우들을 만나고 여학생회를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고, 단대 여학생회, 총여학생회에서 과여학생회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함께 1년을 가져간다면 여학생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97년 함께 열심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학생회 일꾼님들

12대 자주 총여학생회장 최운진이 드립니다.

☺정교어학생대표자회의 행사 일정

본회의

1. 개회사, 인사말
2. 대의원 인사(단대별)
3. 중여학생회 집행부 인준
4. 중노선, 1년 사업계획 발표, 토론, 인준
5. 정세에 대하여
 - 97년의 정세에서 3월 28일,29일 한중련 총궐기와
4·9 시대정신이 가지는 의미
6. 대동학교의 준비상황보고와 잘할데 대하여
7. 1분발언대(대의원 중)
8. 폐회사

뒷풀이

☺97년 전여대회의 의의

1. 전여대위원?

총여학생회는 팔천여학우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사업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팔천 여학우를 대표하는 과여연장, 과여학생회장, 단대여학생회장 등 대표자들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총여학생회는 여성문제를 팔천의 힘에 근거하여 여학우들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팔천 여학우 한명 한명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운영위, 단대여학생회, 과여학생회등의 기층의 주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내어 여학우대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이에 근거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3월이라는 바쁜 시기에 기층 과의 여학우 대표자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전교여학생대표자회의(전여대회)입니다.

전여대회는 여학생총회가 열리지 않는 한 최고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만큼 주어진 의식으로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날이 급변하는 정세에, 이땅을 살아가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민족복헌의 자랑찬 여학생 대표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전여대회의 대의원은 누구지?

그렇다면 민족 복헌의 여학우를 대표하는 전여대회의 대의원은 누구일까요?

민족 복헌에는 총여학생회가 있고 단대여학생회 또한 4단대가 있지만, 단대여학생회가 없는 곳도 많이 있고, 과여학생회가 없는 과 또한 많습니다. 그렇기에 과여학생회장님, 과의 여부회장님, 여학생회도 여부회장도 없는 과는 여연 소모임장, 그외 여학우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예를 들어 여학생 협의회 등), 단대여학생회장(위원장),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부회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아닌 여학우라도 의결권은 없지만 누구나 참관을 하셔도 됩니다.

3. 대의원의 자세

- ☆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과여학우의 대표로서 과여학우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여학우를 책임지고 있는 대의원으로서 전여대회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 ☆ 과여학생회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여러 모임을 소개하고 이를 전파하는 여학생 대표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 ☆ 대의원은 여학우의 대중조직인 총여학생회의 사수와 강화에 책임있는 주체로 참석해야 합니다.
- ☆ 전교여학생대표자회의라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풍부한 안건의 상정과 신중하고 책임성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지금까지의 전여대회의 평가

전여대회는 94년 1학기 1차회의와 2학기 2차회의를 가졌었고, 95년에는 성사를 못 시키고, 96년 3차회의를 가졌었습니다.

1,2차회의에서는 대의원을 많이 참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여대회를 성사시켜나가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과까지 전여대회의 의의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전교 여학생 대표자들의 의식 수준이 너무 다른 관계로 낮은 수위로 맞추려고 주려고만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잘하려는 결의가 높은 여학생대표자들의 생각

을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3차회의또한 성사시켜나가는 과정또한 많이 부족했었지만, 여학우대표자들이 모여 한해를 잘 살아가기 위한 결의를 다질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5. 97년 4차 전여대회의 의의와 목표

의의

- ◆각 단위 여학우 대표자들이 모두 모여 자신의 책임성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내고, 한해의 결의를 높일 수 있는 자리여야 하겠습니다.
- ◆논의 수준이 낮더라도 사전의 철저한 준비과정으로 총여학생회의 1년의 상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층 여학우들까지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면서 과와 단대의 지도구심으로, 실질적인 여학우 대중조직으로 총여학생회가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여야겠습니다.

목표

- ◆전여대회는 성사시켜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모두 진행하고, 총여학생회의 총노선과 전여대회에 대한 고민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자들이 주체적인 결함을 하는 전여대회여야 하겠습니다.
- ◆총여학생회의 총노선과 1년의 사업을 기층과 함께 공유하고 이후의 전망을 수립하여 체계강화를 위해 여학생 대표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층 여학우들과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이것을 토대로 여학생회 사업의 핵심사안을 내어올 수 있어야겠습니다.(설문지를 통해서 기층 여학생대표자들의 여학생회에 대한 의견까지 모아서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 ◆북현의 여학생회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여학생회 사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강화,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여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맞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세에 어두워서는 안되겠습니다. 자칫 여학생 대표자들은 정세에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모두 모여서 97년의 급박한 정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3월 28,29일 총결기와 민족북현에 면면히 흐르는 4·9시대정신의 의미에 대해 열심히 논의해봅시다.

민 / 족 / 복 / 현
12/대/자/주/총/여/학/생/회
총 ☯ 노 ☯ 선

조국의 당당한 딸로 청춘을 빛내고
나의 과에서부터 여성 자주화 실현으로
8천여학우의 빛나는 삶의 지표로
자존을 회복하자!

☉ 가치 해설 ☉

조국의 당당한 딸로 청춘을 빛내고 : 97년 조국과 민중이 청년에게 부여한 자신의 임무를 다 하는 속에서 8천여학우의 청춘을 빛나게 하고

나의 과에서부터 여성 자주화 실현으로 : 8천 여학우 개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성 자주화 실현의 의지를 자기 과에서부터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책임지는 여학생 조직을 건설하고

8천 여학우의 빛나는 삶의 지표로 자존을 회복하자! : 민족복현 8천 여학우가 97년 조국과 민중이 부여한 임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만학우의 투쟁의 구심으로 총여학생회가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8천 여학우 개인이 과 생활에서 느끼는 여성자주화의 문제부터 하나 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 단위의 여학생회를 재건하여 민족복현 11년의 자주적 여학생회운동의 자존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대안없는 비판이 아닌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의 선봉에서
여학우 삶에 근기에서 여학우를 주인으로 세워내는
지주적 여학생회의 실현을 꿈꾸며 우리는 달려간다.
여성예방 인간예방 지주세상의 길로!**

1. 들어가며

총여학생회의 총노선이란 복현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단과 학우들의 의식흐름에 근거하며 97년 민족복현의 여학생운동이 나아가야할 총적지향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서화된 총노선은 민족복현 여학일꾼들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의 맥으로 매시기 여학우들의 의식흐름을 진단하고 그를 주도 하기도 하며 8000여학우들을 대표하는 대중조직으로 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총노선이 단순히 일년간 먼지 쌓인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라면 없느니만 못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각인 진정 실사구시적이고 8000이 합의하고 이만이 함께하는 총노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97년 12대 자주 총여학생회의 상은 기본적으로 11대의 겸허한 평가에 의해 그 성과점들은 받아 안고 반성하고 타파해야 할 지점들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해결의 새로운 상을 제시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됩니다.

2. 여대생의 존재 규명

여대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있어 남학생과의 차이를 먼저 얘기 하기보다 청년학생으로서 여대생의 특성에 대해 바로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학생은 청년학생으로서 정의감이 강하고 선진사상과 시대 추세에 민감하여 민족적 각성이 빠르고 높은 공동체적 지향을 가지며 조직성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이기에 정서적이고 다정다감하며 기본적으로 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주위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여대생의 사고 방식은 소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개개인으로서 보았을 때는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나 학과공부에 적극적인 성실성을 발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실현 의지도 높아서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취업을 통한 사회적 자아실현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 집니다. 이는 여대생, 혹은 여성들의 본성이 소극적,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에 주체로 서고자 하는 자주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실성이 좁은 범위에 제한되어 있으며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회속에서 생겨진 모순에 의해 주동적인 본질이 왜곡된다면 그 사회 속에서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문제의 본질을 피 뚫기 보다는 개인적인 부족함으로 치부해 버리면서 혼자서 아등바등 해결해 보려한다는 것입니다.

여학생의 이런 긍정적 본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 본성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녀 차별 구조를 이용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이 여대생들의 사회진출을 봉쇄하고 있고, 그나마 열려있다고 생각되는 전산, 교직, 공무원, 통역, 면역 등의 제한된 분야에서조차도 여성들끼리 경쟁을 유도하여 임금을 저하시키고 극히 제한된 진출밖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는데 힘겨워 하면서 결국에는 지치게 되고 대안으로 결

혼을 통한 편안한 삶을 구하고자 하는 여학우, 소위 복고풍 여학우들이 등장한 것을 한 개인의 '의식부족' '능력부족'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단순히 성모순, 성차별의 왜곡된 의식만이 여성들의 자주적인 삶을 저해하는 것일까요? 본질은 언제나 능동적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억압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 나가려는 정신이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애 사회속에서 규정되어지는 모순은 그대로 개인으로 적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을 억압하는 지점이 있다면 많은 사람을 조직하여 사회속에서 투쟁하여 그것을 척결하고 승리를 일구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 또한 예외 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라가 어렵고 어지러울 경우 이중 삼중의 고초를 겪어야만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이 자기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나서며 주인 주체로 서기 위해 사회가 자신의 삶을 규제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작은 힘 하나 하나를 모아내고 조직화하는 것이 자주적인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학생회가 자주적으로 발생되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아직도 예전에 가져왔었던 사회모순은 다른 형태로 여전히 산재해 있기에 여학생회가 가져야 할 위상은 여학우 대중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하나로 결집해 내고 그 힘을 배가 시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현시대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을 깨 부수기 위한 작업이 바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것은 광의의 의미로 민족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작업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여성자주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기 삶과 민족의 삶, 운명을 일치시켜내는 것 그것을 바로 여성자주화 사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야 말로 우리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본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 그렇다면 여학우들의 올바른 정서는

올 97년 대선을 통해 김영삼은 또 다시 자신의 사생정권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노동법 안기부법의 개악으로 거대한 친미보수대연합구성의 발판마련을 위해 5,6공세력의 끌어안기와 전, 노 일당의 감형처분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김영삼의 집권 4년 동안 수 많은 여성정책은 허구였음을 알았고 식민 자본 정권의 본질에서 우리 여성들은 이배 삼배의 억압을 당했기에 올 대선 전에 정신대 문제완전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그의 가장 큰 걸림돌 김영삼 정권을 조기에 타도하는 투쟁으로 일구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성자주화의 올바른 실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특별히 경북대 여학생 운동의 내부정서는

먼저 경북대 여학생 운동의 조직적 상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봅시다. 여학생회는 분명 8천 여학우를 대표하는 대중조직입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가 포괄해야 할 여학우들은 8천 여학우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층단위 여학생회 즉 단대여학생회가 없는 단대가 많음으로 인해서 실지로 그들의 요구를 다 받아안는다는 것은 무리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층단위를 잃고 우리 여학우 대중을 조금씩 잃어갈 때 여학생운동은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근 몇 년을 내려 오면서 극단적으로 말해 경북대 여학생운동이 사향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즉 기층단위를 잃고 조직력을 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의 명확한 상은 경북대 여학생운동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중요한 단서라 생각합니다.

네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여학생운동을 주도해 가야할 간부들을 인선하는데 있어 그들을 운동의 관점으로 인선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랬다손 치더라도 준비기 사업을 통해 내실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나 충분한 교양이 부족하여 활동가로써 대중간부로서 체화도 느려 명실상부한 여학생운동의 활동가로써 그 위상을 미처 정립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또한 **두번째**는 그렇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북대 여학생운동이 93년까지 겪어오면서 비약적 도약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중사업은 많으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하락되어진 간부들로 인해 집행역량이 많이 부족했으며 **세번째**는 실상가상으로 기존에 진행해왔던 사업은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억지로 따라가서 어떤 식으로든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급하게 사업을 치워내고 충분히 학우들과 평가하고 성과점을 받아안기 보다는 다시 또 다른 사업에 목을 매어야 하는 사업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8천여학우들의 시기별 정세나 동향, 의식수준을 먼저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들의 의식흐름을 주도해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학우가 대중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업으로 자칫 여학우가 소외되고 여학생회만 하는 사업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마찬가지로 연유로 인해서 각 단위와 중앙과의 총화지점이 다르고 매 시기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97년이 경북대 여학생회운동의 소생기로서 기층의 강화는 하루세끼 밥 먹어 생명을 유지시키는 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4. 97년의 과제

첫 번째 과제

반미 반김 투쟁은 여성지주학의 필요조건

*올해 선봉대를 조직하고 조직적으로 여학단위의 투쟁으로 만들어 내었던 정신대 투쟁,
벤틀 빌리리 와 이기순씨의 죽음으로 시작된 주한미군 철수 투쟁,
연대항쟁을 통해 현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허구성을 깨발리는 투쟁*

이러한 투쟁은 공통적으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김 반미 투쟁으로 나아가야함을 보여준다. 민주주도 민주대연합구도를 형성하여 대선을 통해 민주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정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단지 어떤 민주후보를 세우는 방안이 아니라 5.6공의 사생아였고 철저하게 민중과 괴리되었던 김영삼을 몰아내어야만이 김의 또다른 사생정권 수립의 노력에 썩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중의 응집된 분노가 엄청난 역량으로 분출되고 있는 지금에 청년학생이 반김 투쟁의 일주체로의 어떻게 역할을 높여내는가가 관건이라면 여학단위 또한 청년학생으로의 자격과 임무를 가지므로 김타도임을 명확히 하도록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신대 문제 해결에 대해

96년에 완전해결하자는 기치 아래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관건이 바로 김영삼 정권 타도에 있다고 했었다. 올해 완전해결할 수 있는 정세였으나 민간위로금 철회투쟁과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해서는 최대의 걸림돌인 김영삼을 타도하는 투쟁임을 각인하고 하반기까지 강력하게 벌여내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얼마전 또 일본정부는 한국의 노동자 정국을 틈타 할머니 7분에게 '국민기금'을 지급해 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김영삼 정권의 그에 대한 발빠른 대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요원한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전쟁책임과 비인도적 범죄행위로 인한 국가의 책임을 국민개인의 책임으로 환원시켜버린 국가는 없다. 국민은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고 세금을 내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에 동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이 이 '국민기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에 다시 한 번 65년 한일협정과 같은 오류를 남기게 될 것이며, 우리 할머니들의 명예와 민족의 자존심은 또 한 번 역사속에 그대로 묻히고 말 것이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범죄 인정도 하지 않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채 이제 국제적으로 면죄부를 얻게 되고, 자신있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평화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군국주의 일본으로 부상될 것이다.

한편, 이렇게 힘들게 참아내고 이겨내고 있는 우리 정신대 할머니들을 더 이상 고통속에서 살아가도록 방치해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52년으로 끝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 외세에 빼앗겼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 어머니들을 침략자의 성노예로 이용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할머니들을 우리 민족의 품으로 보듬어야 할 때이다.

작년 한해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의 분위기로 민족복원을 흔들리게 했다면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고에 또한번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할머니들을 우리가 지킵시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위로금을 거부하고 후원회를 조직화해서 할머니의 생명을 건 투쟁에 함께 하고 정신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유연한 김영삼을 타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또 한 번 전력질주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역사를 만들기 위해...

즉 1.정신대 할머니 후원회를 건설하고(몇 년이 되든 장기전이 되므로 수위 높은 투쟁이라 할 수 있다.)

2.지속적인 강연을 통해 또 한 번 여론을 형성하여

3.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세 대응으로 내용을 생산한다.

둘째. 조국통일 투쟁에 대해

이기순씨 살인 사건을 통해 불어졌던 주한 미군 철수 투쟁은 결코 시기별로 터뜨려지는 사안별 투쟁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규정지어주는 주한미군과 이에 의해 식민지 한반도의 여성은 유린당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주한미군에 의해 우리나라 여성들이 한두번 당했나라는 반응이나, 하루 이틀 얘기인가라는 반응은 주한미군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뿌리깊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며 이제는 주한미군철수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철수 투쟁은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투쟁이며 그것은 곧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기본전제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단순한 편지 교류나 이북의 정신대 할머니와의 연대투쟁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조국통일 투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국 통일 투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민족대단결 의식의 고취이다. 그것의 구체적 실천 방도로써는 북한여성바로 알기이다. 작년 설문조사에서 자주교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여학우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한다. 초보적으로 북한여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시키는 작업부터 차근차근해야하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 한 나라 혹은 한 민족이 외세에 짓밟힐 때면 여성들의 고통은 두배, 세배가 된다

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윤금이 누이나 이기순씨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에 의해 하루 평균 5명이 유린을 당하고 있다. 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음란잡지, 비디오의 80%가 주한미군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명실공히 주한미군은 퇴폐향락 문화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화속에서 만연된 성개방이 아닌 성문란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여성들의 스트레스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폭력의 위협'이라는 보고를 보면 가히 여성들의 자주성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여성들이 일찍 일찍 다니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에 의해 피해를 받아도 적당한 보상이나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우리나라)는 당신(미국)의 식민지요 라고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한미행협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투쟁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더 큰 도약일 것이다.

내 민족의 운명이 결국에는 나의 운명을 좌우하기에 민족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일치시켜 나가서 투쟁하는 길은 바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고 자주권을 되찾는 것이 될 것이다,

셋째. 성을 이용한 권력남용으로 검증된 김영삼의 허구적인 여성정책

올해 대선을 이용해 김영삼은 여성들의 표를 끌어모으기위한 사탕발림용 여성정책을 홍수처럼 내 놓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작년 연대항쟁은 우리에게 김영삼의 여성정책이 말짱 허임을 극명하게 드러내어 주었다.

현데 97년도 새로이 민족복원의 주인이 될 새내기들은 각종 반공 훈련을 통해 연세항쟁을 좌경 폭력세력의 폭동 쫓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연세 항쟁을 다시 한 번 주도면밀 분석하여 올바르게 해명할 책임이 있으며 어느 전경의 양심선언으로 성희롱이 있었음은 누구나가 명백히 얘기하기에 그것을 중점으로 알려내어야 할 것이다.

▶ 김영삼정권의 여성 정책에 대한 평가 ◀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 정책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성 정책은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이다. 즉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으로 성에 기인한 사회적 차별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여성 정책이라 한다. 그리고 정책의 평가는 정책 내용 자체를 포함하여 정치 행정 체계 내부에 대하여 시정 조치 요구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우선 김영삼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여성에 관한 정책들이 여성 정책이라는 이름에 값하는가를 알아보는 여성 정책 평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그 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여성관을 분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성운동 내에서 합의되고 ILO,UN등 국제 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여성정책이 기반해야 되는 여성관의 핵심적 내용은 세가지이다.

첫째 여성도 자신이 가진 적성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일할 기회를 얻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노동권과 평등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것,

둘째 여성이 생리 임신 출산 수유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나 이를 기본으로 여성을 자녀 양육자이며 가사 담당자로 역할을 규정하여 전통적 성별 역할을 지속시켜서는 안된다.

셋째, 남녀는 공동으로 가정과 직장 정치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기업은 법제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시기 신한당의 대선공약, 제 7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중 여성개발 부문계획 그리고 여성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노동부, 보사부, 교육부, 정무장관(2)실 등의 93년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을 토대로 정부의 여성정책의 방향과 1년 실적을 노동, 성, 교육, 정치, 가족, 복지영역에서 분석해 보면 우리는 이 지배이데올로기가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알 수 있다.

첫째 여성에 관한 정책들이 기반한 여성관이 전통적 가부장적 원칙속에 견고하게 뿌리박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일차적 위치는 가정내에 있고, 남편에 의해 대표되며, 여성의 바람직한 역할은 출산과 육아 그리고 가사노동이다. 따라서 여성은 생계의존자이며, 혹 직업을 가지는경우에도 생계보조자일 뿐 생계 책임자는 아니다.

두 번째 특성은 개혁의지가 전혀 없는 정책이라는 점과 정책의 후진성이다. 올해 있었던 연세대 항쟁에서 보여진 공권력남용으로 인한 성추행, 폭행과정과 시대에도 맞지 않는 미니스커트 단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03정권의 이중적 잣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여성노동정책의 기본 방향은 '여성의 역할이 가사노종의 책임을 혼자 지면서 직업 활동을 양립하도록 할 수 있는 가'로 잡힐 수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성의 생존을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며 필요에 따라 어떻게 효과적인 저임금 노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로 바꾸어질 수 있다. 요컨대 여성은 노동권 평등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을 보았을 때 고용형태는 준문직이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여 왔고 시간제 근무 재책근무, 파견 근무 등이 늘어나 여성고용불안정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재계는 가정을 가진 주부들이 정규직처리 시간에 속박되지 않고 편리한 시간, 장소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새로 제정하려는 고용보호법에서도 여성노동자는 상당부분이 제한되어 (우선 적용대상이 10인 이상 사업체에 한정되고 시간제 근로자 대상에서 제외됨) 실업시 책임이 가정과 남자에게로 밀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한가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으로 가족의 생계가 남성에 의해 여성의 생계가 보장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여성은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가사노동과 병행하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촉진되었으며 여성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비정규 여노동자에게 법적모소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의 여성의 취업구조의 불안을 낳고 있다.

이에 이러한 허구적인 김영삼의 여성정책을 까발리는 투쟁또한 김영삼 타도 투쟁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기지

단어 건준위의 단어 강화로 경북대 여학생운동의 기증 강화

자주적 여성상의 구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학우의 현재적 고민을 총화하고 발전시켜 여학우가 자기 삶에 있어 주인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자주'의 상을 그리는 데 있어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왜곡된 성문화 유입과 기형적인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여성의 존재를 개별화 객체화시키면서 여학우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

이는 여학우들은 본질적으로 어느 남학우 보다 더 공동체적 지향을 가지기에 현재적 여성의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 여학생회 단위의 건설은 필수로 놓여진다.

보다 구체화된 자주적 여성상을 그리는 데 있어 여학우 개개인이 고민을 총화하고 여학생회내로 끌어냄에 있어 단대 여학생회 강화와 함께 단대 여학생회장의 대중간부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과단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단대 여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여학생회 골간 단위를 보다 튼튼히 세워 내야 한다. 이는 총여학생회 중앙운위의 역할을 높여 내는 문제와 고 직

결된다 할 것이다.

1. 단어진준위 : 각 단대별 상황을 다시 한 번 실사 총화하여 각 단대별 주제를 마련하는 것 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2. 단어강화
3. 중앙운영위의 역할 강화
4. 간부들의 지속적인 교양으로 여성자주화 사상을 먼저 몸으로 체득하고 대중들을 만나 들어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 조국의 당당한 딸로 청춘을 빛내고
나의 과에서부터 여성자주화 실현으로
8천여학우의 빛나는 삶의 지표로
자존을 회복하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상운동 영역에서

사상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지레 어려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단하답니다. 즉 여성 자주화 사상을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상을 대중화 하기 위하여 이 사상을 일관되게 매 사업속에서 녹여내어야 한다는 것과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고민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1. 여성자주화 사상의 올바른 이해를 단위 간부로부터
2. 아침이슬을 총여학생회에서 따로 실시 하면서 학우들의 의식흐름을 주도하고 잡아나간다. 경대여성을 통해 총여학생회의 성과를 알려내고 총화한다.
3. 일상적인 선전을 강화 한다. : 학우들과 메시지를 근본적인 것부터 합의 하는 과정으로 만든다. 설문지 등을 통한 열린 평가로 학우들을 좀 더 대중적으로 만나다.

조직운동 영역에서

여성자주화 사상을 대중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1. 단어 건준위

8000여학우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주적 대중조직이 바로 총여학생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지로 그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만날 수 있는 정식적인 연결 통로 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어가 있는 단대는 6개 단대뿐 나머지는 적은 총여 간부의 인력으로 꼼꼼하게 적극적인 수렴과 지도가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단대에 맞는 기층 건설과 더불어 올바른 주체를 세우고 주체가 단대에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앙의 지도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즉 작년의 경우 중앙의 역량부족으로 구체적인 주체가 없었으나 명확하게 주체를 세우는 작업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체는 총여학생회 부회장의 1인이 될 것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단대 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하거나 단대

통일 소모임이나 사과반에 커리를 제공하거나 마찬가지로 간담회를 통해 단대학생회가 주도적으로 고민을 받아안고 주체를 세우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단여강화

가장 핵심적으로 놓여야 할 것은 중앙운위의 논의력을 높여내고 단여회장님들의 고민은 전체여 학생운동을 바라보며 통크게 사고하여야 할 것이다.

각 단위의 상황에 맞게

인문대의 경우 -여연이나 탁아 소모임을 통한 강화

-과 여학생회가 작년과 달리 제대로 세워진 곳이 없다 따라서 과여학생회 건사업을 통해 과 학생회와 끈임없는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고 주체를 준비중이다.

사범대의 경우 화학교육과의 과 회장님이 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세울 수 있었다. 따라서 이과를 모범으로 전과하여 여학생회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

사회대의 경우 2개과 외의 다른 과 여학생회 건설 준비

농대의 경우 과여학생회 체계르의 발전이 목표이고 실지로 작년에 2개과에서 여학생회를 세웠으나 내용의 부족으로 지속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단대 여연을 만들어서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어야...

3. 간부사업

각 단위 여학생회 간부들이 여성자주화 사상을 올바르게 틀어쥐고, 전체운동과 여학생 운동의 관계를 해명하여 여학생운동의 자긍심을 높여낸다.

간부 재생산

- 간부지 (간부들의 생활 교양서요.생활 지침서가 될 것이다.)를 정기적으로 발간 하여 지속적인 교양의 커리를 제공하고 간부대회를 통해 총화하면서 모든 일꾼이 같은 감으로 일년 사업을 만들어 간다.

대중운동 영역에서

1. 여성자주화라는 우리의 사상을 명확히 틀어쥐고 조직 영역에서 제기된 간부를 주체로 세워 낼 때에 대한 고민과
2.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과 주한미군철수 투쟁 김영삼의 여성정책을 고발하는 투쟁을 통해 여성자주화의 실현은 김영삼 타도임으로 일관된 흐름을 매 시기 대중 사업을 통해 풀어 낸다.
3. 일상선전을 8천여학우들에게 실지로 다가설 수 잇는 여학생 (아침이슬) 을 만들어내고 8천 여학우들의 의식흐름과 함께 한다.

-성폭력 추방

이것은 벌써 복지요구안이 본관에서 통과 됨으로 성과점을 함께 공유한다.

2만이 함께 개척한다. 진정한 남녀공학의 실천으로 희망의 97을 !!

12대 자주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 부서별 사업계획서

사무국 일년 사업 계획서

1. 들어가며

민족복헌 자주 총여학생회는 8000여학우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하나의 일관된 지향점을 만들어 그 속에서 각 여학우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됨으로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여기서 총노선의 역할은 문서로써 총적 지향을 밝히고 지향을 실천하기 위한 방도를 합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이러한 상을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며 과학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방도입니다.

97년 여학생 운동의 새로운 전환 국면을 맞으면서 아래로 부더의 강화가 선차적이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단위의 역할 또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번 주도면밀하게 짜 나가 볼까요!!

2. 지위와 역할

사무부는 재정, 기획 및 단위의 사업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집행의 통일성을 담보해내기 위해 전체 사업을 총화해내는 주체입니다. 즉 집행 총화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총여학생회 내부의 집행부원들이 서로를 총화하고 인간적 유대를 높여가며 서로간의 애정과 이해를 높이며, 조직적인 생활속에 있어서 간부 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생활 총화까지도 책임집니다.

그리고 전체 집행의 맥을 파악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업에서는 전체적인 기획을 먼저 고민하며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정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① 정책과 노선을 먼저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집행한다.
- ② 집행단위를 총화, 조절, 통제하고 전체 집행부를 조직, 관리한다.
- ③ 올바른 재정관을 가지고 이를 행하며, 간부들에게 재정사업의 원칙과 관점을 교양, 정립시켜 나간다.
- ④ 생활의 조직화, 비품 관리등 사업의 조건을 마련한다.

3. 사업의 원칙

- ① 사람 중심의 사업을 한다.
- ②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는다.
- ③ 책임지는 사업을 수행한다.
- ④ 재정사업은 공개성과 민주성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의 구체적 내용

① 재정사업

이 역할은 사무부의 기본 사업이며 전체 사업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물적 토대를 이루는 사업이다. 여기에서 요구되어지는 원칙은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라 내용과 체계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사업 계획에 기초한 재정을 확보, 이 재정에 기반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을 공개하고 결산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② 기획사업

일년동안 민족 복원의 여학생운동을 울곧게 세워 나가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먼저 고민하고, 기획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칠천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세로모임의 안착화를 통해 각 단위와 같이 고민하고 기획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나오며

각 부서별로 일년의 흐름을 짚어 보는 사업계획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기시기 별 구체적인 내용과 미흡한 점은 함께 하는 토론의 장에서 그리고 그때 그때 보충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년 잘 살아 봅시다. 투쟁!!

정책부 사업 계획서

1. 들어가며

97년 경북대 내외의 정세와 12대 자주 총여의 총노선에 비추어 볼 때 기층 강화와 단여 건준 위라는 부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8천여학우들을 책임지는 중앙 단위로써 우리가 선거 공약부터 총노선에 이르기까지 학우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온 것들을 1년의 큰 흐름속에서 일관되게 녹여내야 할 일차적인 의무와 책임입니다. 작년 간부의 상(연사, 여연)으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평가는 올해가 정책을 비롯한 새로운 간부 상의 진형을 마련할 때임을 말해주기에 97년 정책부서가 새롭게 고민되었습니다.

2. 정책부의 위상과 역할

정책부는 그 해 정세 속에서 총노선을 어떻게 사업속에서 녹여낼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과 그 해결방안, 즉 내용생산을 해내는 단위이다. 그리고 각 부서의 정책을 총화해내고 각 부서가 총노선에 맞는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단위이다. 또, 총여의 감과 기층의 감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교양의 역할을 하는 단위이다.

총여학생회의 정책부 또한 다르지 않다. 올해의 여성 정세 속에서 우리의 총노선을 어떤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하는 고민으로 그 내용과 수위를 창발적으로 내어오고 그것이 한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되지 않도록 발로 뛰며 단위 간부들과 여학우 대중들을 만나 들어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핵심인 간부의 사회 정치적인 생명을 높여내기 위한 교양, 지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각 시기별 사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속에서 매 사업의 방향성을 내어오고 여학 간부들의 사상 교양사업을 튼튼히 함으로써 최소 2년 이상의 여학생 운동을 결의할 만큼 여학 활가들의 원칙을 확고히 다지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바로 정책부인 것이다.

3. 정책부 사업의 원칙

- ★ 모든 정책 생산은 정세 판단속에서 총노선 구현을 중심으로 만들어 간다.
- ★ 머리에서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 발로 뛰어다니면서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한다.
- ★ 매 시기 사업에 매몰되지 않고 정세의 흐름을 읽어내는 속에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다.

4. 정책부 사업의 내용

① 월별 사업 기조 마련

시기별 사업을 함에 있어 1년이라는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중심을 잃은 채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더구나 중앙이기에....

총노선과 각 시기 정세속에서 매 달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월별 사업기조를 마련하겠습니다.

② 간부의 집단 교양

바쁘게 진행되어가는 사업으로 그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양, 학습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실천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 속에서 대중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각 단위 간부들의 교양총화는 아직 안되었으나 방 중 내려진 교양 커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단위의 교양을 총화하고 그 단위 실정과 시기에 맞는 교양 내용을 새롭게 창발적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③ 시기별 시안 투쟁 마련

97년은 총선이 있는 해이고 전민 항쟁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때 보다 청년학생들의 가열찬 투쟁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정신대 투쟁 또한 반값 투쟁과 결코 동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총노선에서 합의하였습니다. 급박한 정세속에 여학우 한명한명이 투쟁의 일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의 투쟁내용을 만들어 가야 겠습니다.

④ 지속적인 단위하방

과여학우의 요구와 실정을 총화하는 단대, 단대를 총화하는 총여, 이렇게 과- 단여- 총여의 전일적인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하방은 필수적입니다. 단위의 요구를 받아안고 그단위의 실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고민과 해결방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방을 펴나가겠습니다. 하방의 창발적인 방식과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 나가며

정책부서는 94년 이후 사라졌다가 올해 새롭게 고민된 만큼 기존의 성과를 받아안기에 그 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다른 부서에 대한 인선도 부족하여 몇 안되는 간부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사안들로 정책부에 대한 고민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욕심부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키고 차근차근 제 부서에 대해 이해해 들어가며 원칙에 충실한 1년을 살아감으로써 단위 간부들과 8천여학우들에 부끄럽지 않는 정책부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97년의 정세에 대하여

희망있는 사회는 청년이 투쟁할 때 만들 수 있다

1. 21세기 목표를 꿈꾸며

21세기는 희망의 세기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른 나라의 간섭과 지배를 극복하고 자주적 발전을 꾀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세기입니다. 사람의 삶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혁신하고, 주변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인연을 맺으며 함께 살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 가 하는 것은 개인의 미래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97년 한국사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암흑 그 자체입니다. 수십년간 민중들이 싸워서 이룩한 민주주의와 통일의 성과가 김영삼 정권 4년만에 모두 군사독재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으며, 국민들의 지향인 자주민주통일이 도저히 불가능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썩고 부도덕한, 반민주적인 정권과 체도에 맞서 투쟁할 때 역사는 민중의 희망대로 만들어 집니다. 현실에 분노하고 슬퍼하지만 아무 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넘두리만 하고 있으면 역사는 더욱 오만방자한 독재자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 모두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를 제 방향으로 돌리는 길에 청년의 임무를 다 합시다.

2. 지금 우려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1> 썩고 부패하여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은 취임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서민이 잘 사는 사회],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부정부패가 없고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한국사회는 부정부패, 부정비리가 끊임 없이 계속되었으며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가 그 주범으로 처벌을 받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이후 부정부패, 부정비리는 제일 먼저 전두환 3000억원, 노태우 7000억원의 비자금에 밝혀진 사건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지만 노태우의 비자금중 5000억원 이상은 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산자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김대중씨도 야당후보로 20억원을 받았는데, 같은 당 후배이자 여권 후보인 김영삼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김영삼의 최 측근인 장학로비리사건과 이양호 국방부장관의 비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보비리가 있습니다. 한보비리는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직접 관여된 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하기가 대통령의 백이 아니고야 담보도 없이 5조원이나 되는 돈을 은행이 빌려주겠습니까?

2> 민주주의는 죽고 파쇼의 질서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주항쟁을 통해서 30년이나 계속된 군사독재를 끝장내고 탄생한 문명정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할 때, 90% 이상의 지지를 보내며 민주주의를 정의의 실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공약,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막겠다던 쌀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이때 국민들은 1천만명 이상이 쌀수입을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만의 독선으로 수입개방을 반대하고 말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권좌를 잡기 위해서 80년 광주에서 2000여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것이 밝혀졌지만 역사에 맡기자며 처벌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청년 학생들과 국민들이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두 대통령의 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에 밝혀지자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것은 묻어 두고 슬그머니 구속하여 학살자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노태우의 비자금 중 5000억원 이상을 김영삼 대통령이 받은 것을 숨기려고 서둘러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고 사면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한국당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선거비 내사 등의 온갖 공갈과 협박으로 야당의원들과 자민련의원들을 끌어들여 여소야대를 인위적으로 야대여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국회에는 도둑놈처럼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모여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노사개혁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은 하루 아침에 정부여당 단독으로 유신시대 수준으로 노동법을 개악하고 만 것입니다. 노동법 개악은 민주세력 중 가장 큰 힘을 가진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경제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술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기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치, 공작통치를 끝내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안기부의 국민사찰을 금지시켰던 김영삼이 자신의 손으로 또 다시 안보통치, 공작통치를 하기 위해 개악한 것입니다. 안기부법이 개악되기 전에 벌써 김형찬 학우 불법감금, 조작수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안기부가 앞으로 할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것 같습니다.

3> 7천만 민족의 희망 통일은 김영삼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족보다 나은 동맹국은 있을 수 없다], [사심을 버리고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자]라고 말해 놓고는, 93년 수입개방 반대의 국민여론이 높아 슬그머니 북한 핵문제를 제기하여 남,북간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더니, 96년 11월 워싱턴 포스트지와 기자회견에서는 당국간의 대화를 포함하여 모든 대화를 중단한다는 망언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노태우 군사독재 시절에 남,북간의 총리회담과 남북합의서 채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 4년 동안은 93년 핵문제, 94년 조문파동, 96년 잠수함 사건 등 대결과 전쟁의 분위기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 연속적인 재해로 인하여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을 자신의 정권 유지 기반으로 이용하며 최소한의 민족애마저 저버렸습니다. 미국등 외국국가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하는 되, 식량을 지원하면 군사미로 전용된다는 말을 퍼뜨리고 외국의 식량지원도 막아서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실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북한의 굶주리고 있다느니, 곧 붕괴될 것이라니 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집권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삼은 자신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통일하자고 나선 국민들을 친북이적, 좌경용공으로 매도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광폭하게 탄압하였습니다. 통일을 향한 민중의 열망과 지향은 정권이 막아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정권을 반대하는 기운만 높아질 뿐이며, 더욱 굳게 결속됩니다. 김영삼 정권은 통일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가로막고 자신만이 통일을 외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함을 보이더니, 작년 연세대에서는 통일을 하자는 우리 청년학생들을 2만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였습니다. 통일하자는 집회를 가지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집회를 막기 위해 검문을 실시하고 도로를 막고 최류탄을 퍼부어 되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4> 우리 민중들의 삶은? 파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① 작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사상최대인 2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수출의 내,외적 조건이 좋지 않아 적자는 계속 신기록을 달성하며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수출부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외채도 사상최대로 늘어 작년 11월 1천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세계 2위의 채무국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외채에 대한 이자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올해는 외채 원리금만 8조 282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이 2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김영삼 정권 집권 이후 무려 15000개의 중소기업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의 위기는 김영삼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한보같은 부실 대기업에는 5조7천억원이나 평평 대출해 주면서, 중소기업에는 담보없이 한 푼도 대출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3~6개월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삼지 않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채가 늘면 당연히 이에 대한 부담은 서민들에게 가중될 수 없으며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의 연쇄부도는 우리 민중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은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묵묵히 열심히 일해온 우리 민중에게 전가하여 임금 동결이니 경쟁력 10% 높이기니 하면서 민중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② 경제는 어려워도 군사비는 계속 두 자리 이상 증가합니다. 올해 국방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30%가 넘는 14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영삼 정권이 통일을 추진하기만 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보장되면 14조원이란 돈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계속 국사비를 늘리며 남과 북 사이의 대화를 원천 봉쇄하고 남,북간 대결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③ 공공요금의 주도하여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는데 임금과 추곡수매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작년 물가인상을 주도한 것은 교육비, 전기료, 철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입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담배값까지 올렸습니다. 19% 이상 오른 기름값 인상 95% 이상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의 수입원인 임금과 농민들의 주된 수입원인 추곡수매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과 과다한 세금의 정수로 어려워진 생활은 임금까지 동결함으로써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김영삼 정권은 반성할 줄 모르다.....

청년학생과 민중이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어야

지금 각계 각층의 국민들 속에서 김영삼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은 기득권층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지식인은 지식인 대로” 김영삼에 대한 반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영삼에 대한 지지율이 3.8%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집권층 내부에서조차 김영삼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 26일 신한국당의 국회날치기 이후 전개된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철폐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범국민적인 지지 속에서 전개되었으며, 민병일 열사 사인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도시빈민들의 투쟁도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영삼은 사면초가에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과 세계화의 실패, 경제파탄으로 인하여 궁지에 몰리고 더욱이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악, 한보사태로 해서 집권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김영삼정권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은 모르고 전쟁책동과 민주세력에 대한 대탄압으로 살아남으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밝히고 국민의 뜻대로 자진 해야해야될 김영삼이 재집권과 집권연장을 위해 전쟁책동과 민주세력에 대한 대탄압을 자행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은 한국사회를 돌릴 수 없는 파탄으로 몰고가는 것입니다. 오만방자하고 욕심이 많아서 물러날 때를 모른다면 국민의 힘으로 김영삼의 독단과 독선을 깨뜨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청년학생들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김영삼을 타도하는 투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삼 문민독재자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청년학생들과 민중들에게는 오로지 싸워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되찾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영삼이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전에 청년학생들이 앞장서고 노동자, 농민이 함께하여 김영삼정권을 끝장내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김영삼을 타도하는 투쟁에 과감히 떨쳐일어서 제2의 4.19로 김영삼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제2의 5.18로 광주학살자들과 함께 학살자를 비호하고 있는 김영삼을 처형하며, 제2의 6월항쟁으로 민주화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는 우리에게 투쟁 하면 승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승만 독재자도, 박정희 유신파쇼도, 대머리도, 노가리도 한국의 모든 독재자들은 국민의 힘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역사를 만들어 온 창조자인 우리 민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급급한 독재자는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하고만 있어 보이고, 참을줄만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국 민중들이 얼마나 위대한 민중인가를 김영삼 독재자와 썩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나쁜 놈을 혼내주는 일에는 정의감이 강한 청년학생이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4. 민족복헌에는 민주주의를 지킨 소중한 정신이 있시오.

배앗긴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민족 복헌은 언제나 시대의 선봉장으로 애국의 근거지로 투쟁해온 자랑스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이만학우와 일꾼들의 가슴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으며 우리 민족복헌의 시대정신입니다. 91년 5월 항쟁, 94년 수입개방 저지 투쟁, 추모비 침탈에 분노하던 2만학우의 비통한 심정 하나 하나가 바로 민족복헌의 전통인 것입니다. “민족복헌 제일주의” “복헌을 복헌 답게” “시대정신 복원”이라는 총적 기치는 바로 복헌의 이만학우가 합의하고 함께 시대정신을 복원하기 위한 기치이자 노력이었습니다.

97년의 4.9는 시대정신의 복원은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재문, 여정남 선배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만학우의 힘으로 김영삼 타도를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암울한 독재정권 시기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선배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청년의 과감한 애국실천을 요구하는 97년 이만학우와 일꾼들의 심장에 피의 맹세로 새겨야 합니다.

★과여학생회는요?

1. 과여학생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새내기들이 돌아오고 인사할 일이 많습니다. “□□과 여학생회장 ☆☆☆입니다.”라는 인사가 아직은 왠지 뻔뻔하고 낯설기도 하지요. 과에서 여학생회장의 자리가 무엇인지, 혹은 올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학생회의 필요성이란 일단 이 자리에서는 줄이기로 하고 ‘과’여학생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대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근거지는 과입니다. 즉, 과에서의 활동이 가장 기본적이며 학우들의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무뎠나 바램이 있다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첫번째 자리가 과일 것입니다. 즉, 문제해결과 변화 역시 과로부터 시작될 때 가장 힘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과여학생회의 절실한 필요성이 놓이는 것입니다.

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고 여학우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제 힘을 낼 수 있기에 총여학생회와 단대 여학생회는 항상 여학우들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애쓰고 또한 그들에게 직접 얘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몇몇의 여학생회 일꾼들로는 역부족입니다. 과여학생회가 여학우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램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요구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만남의 장소인 것이된다. 과여학생회는 여학우들간의 만남을 이루어 내는 것에서부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여학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조직적 힘이 모여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다구요?

“나는 여학생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여학생회장님이 계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과 여학우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과 학우들의 삶에 가치있는 것인가를 판단해보고 사업을 한다면 결코 잘 모르겠다고 사업을 못한다거나 자신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학우를 중심에 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점차 사업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면 될 것입니다.

여학생회장이란 우리 과의 여학우들의 손으로 선출된 여학우들의 대표자입니다.

여학생회장님에게 주어진 한표, 한표는 회장님에 대한 믿음의 의미이며, 함께 하자는 의미가 아닐까요? 언제나 여학우에 대한 애정으로 한사람, 한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모든 일에 임해야겠습니다.

여학생회장님 만큼이나 많은 역할을 해야하는 자리가 여학생회 집행부일 것입니다.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 일을 해도 과에서는 간부로 인정받는 것 같지 않고 혹은 어떤 일을 해내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고.... 더구나 여학생회장님들처럼 보여지는 자리도 아니기에 이래저래 힘든 자리이지요. 다른 살마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눅들기 보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여학생회 일꾼들의 성실한 노력이 있다면 학우들속에서 여학생회가 뿌리내림과 도시에 여학 집행부의 자리는 안정될 것입니다. 언제나 학우들에게 입과 귀를 열어두고 또한 우리가 과여학우들의 입과 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일꾼의 역할과 자리는 찾아질 수 있습니다.

자,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기쁘게 과 친구, 선·후배들에게 여학생회를 얘기하십시오.

2. 한해동안 무엇을 할까요?

과여학생회의 한해 사업계획은 마련되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을 하냥 이것만큼은 해보겠다는 목표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과내에서 여학생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학

생회 집행부들만큼은 확실히 여성문제에 대해 알아가는 한해가 되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우들과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거나 탁아소모임을 통해 학우들이 함께 뜻깊은 일을 해보겠다는 목표도 좋습니다. 커다란 하나의 목표아래 일련의 사업들이 놓여지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성의식 확산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다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3월의 행사에서 새내기들의 성의식을 조사해보며 관심을 모아내고 대자보나 토론을 통해 올바른 성의식을 알려나갑니다. 성교육 간단회도 가능하겠지요. 이후 학우들 속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실천사항들을 모아내어 여학생회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들이 사업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학생회장 혹은 집행부로 일하면서 나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한해 사업이 끝났을 때 여학생회 일꾼으로서 일했던 나에게서 무엇이 변화, 발전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나름의 목표를 가진다면 이는 일년간 끊임없이 자신을 받칠 큰 기둥이 될 것입니다.

3. 이런 걸 애보면 좋아요.

어느 정도만 역량이 된다면 여학생회가 나름대로 준비한 사업을 펼쳐봄으로써 과여학생회를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여학생회 내부의 큰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학생회 집행부들에게도 함께 하는 사업을 가짐은 각자의 역할을 찾아주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요. 매 사업에 있어 준비가 철저해야 함은 물론이겠지만 거창한 것을 계획하고 무리해서라도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형태라도 괜찮지요. 너무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해 들어가며 많은 학우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성과는 남을 것입니다. 뜻밖의 성과도 있을 거고요. 다른과의 모범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핵심적인 것은 과의 상황과 준비하는 일꾼들에 맞게 창의적으로 사업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가에서 진행중인 행사사업으로는 여학생 대면식, 성교육 간단회, 취업간담회, 소식지 발간, 기타 과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사업 역시 1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나 한번 해볼까? 하고 되는대로 이것저것 벌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일상적으로 과방에 기획자보를 붙이거나 화장실에 과여학생회 명의를 작은 알림딱지 하나 붙이는 것등이 결코 이에 못지 않은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4. 학생회와의 관계

과에서 여학생회장님의 위치가 애매한 과이거나 든든한 과이거나 할 것없이 한번쯤은 학생회와의 관계를 고민하게 됩니다. 학생회와 여학생회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확한 역할에 대한 고민이지요.

신입생 환영회나 체육대회때에 여학생회는 어떻게 결합할까요?

우선은 여학생회가 자기의 내용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과의 상황과 행사의 성격상 자기 내용으로의 결합이 어렵다면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한 부분을 맡아 잘 풀어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준비과정에서 선전이나 장보기 등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같은 과에서 사업을 하는 간부들이니까요. 힘담는대로 같이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여학생회 간부들이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면 “여학생회는 이번에 다른 내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전을 맡지요.” 라고 먼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 “여학생회니까 ...” 라는 관점으로 선전이나 장보기를 맡기는 학생회 간부가 있다면 당당하게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어야겠지요.

학생회 간부를 대할 때 우선은 서로 보듬어 안을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친

한 사람이 학생회장일 경우 별 오해없이 사업이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학생회장과 여학생 회장, 학생회 집행부와 여학생회 집행부간의 인간적인 만남과 이해가 많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얘기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과여학생회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여학생회장님은 언제나 과여학우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둘째, 큰 목표를 잡고 그 아래서 사업을 진행해 나갑시다.

셋째, 여학생회의 독자적인 사업을 만들어 봅시다.

넷째, 학생회 일꾼, 그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지입니다.

★우리들의 조직

과학생회, 과여학생회는 그나마 나의 생활 가까이 있고 뭐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 벗어도 내가 속한 조직인 것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확대되어 나가서 단대 학생회, 단대 여학생회나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나아가 대경총련이나 대경여대협이라고 하면 도대체 그게 뭔지 왜 있어야 하는지 그저 당연히 있었으니까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욱이 한총련, 전여대협을 이야기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운동권만의 조직, 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으로 우리의 생각은 굳어져 갑니다.

이제 이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위해서 이 글을 미숙하지만 읽어갔으면 합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가장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학년대표, 여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과의 일을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실행해 나가고(물론 무조건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따라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내용을 학우 속에서 풀어내면서 합의를 내어오는) 이런 여러 과의 목소리를 과회장, 과여학생회장님들이 단대 학생회나 여학생회 회의에 가져와서 다시 단대의 사업을 풀어내고 이것이 모여 총학생회, 총여학생회의 사업으로 외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총학, 총여가 지역별로 모여서 그 지역 대학의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그 지역 청년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조직이 바로 지역총학생회연합, 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입니다. 물론, 우리 대구경북지역은 바로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입니다.

이것이 모여모여 전국 백만학도의 지도와 단결의 구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도 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선간부들과 집행부서장들이 있어서 백만의 사업을 논의하고 진행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에서 하나의 일을 하고자 해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집중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고 쉽게 지쳐버리기가 일쑤고 학우들은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더 다양한 학우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래서 좀더 학우드러이 목소리를 담은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한사람, 한사람을 찾아다니고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된 사업은 아무리 형식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학우속에서 공감을 얻고 준비한 사람들 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총련, 전여대협입니다. 백만의 소리를 전해주는 과간부들속에서 힘을 얻고 사업의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한총련, 전여대협의 간부입니다. 나의 한걸음, 한걸음이 없다면 과연 한총련, 전여대협이 존재하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학우들의 중심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인으로 우뚝 서야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조직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힘들고 또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바로 과학생회, 과여학생회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한총련, 전여대협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객관을 말하면서 이리저리 머리속으로만 재면서 비난만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적 발전은 나의 참여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딪히고 다시 일어서는 한총련, 전여대협 간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8기 대경총련 임시의장님은 영남대 총학생회장님이신 김선기 의장님시구요,

8기 대경여대협 임시의장님은 안동대 총여학생회장님이신 차혜영 의장님시구요,

3기 전여대협 임시의장님은 동아대 총학생회장님이십니다.

5기 한총련 임시의장님은 전남대 총학생회장님이신 강위원 의장님이십니다.

☺경북대학교 총여학생회 회칙

1장 총칙

1조 (명칭) 본회는 경북대학교 총여학생회라 칭한다.

2조 (목적)

총여학생회는 학내 여학우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그 이익을 실현하는 유일한 대표기구이다. 학내에 존재하는 반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타파하고 여학생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 여학생 자치 활동기구이다. 나아가 사회에 있어 여성에 대한 제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구조적 모순의 인식과 현실 극복에 대한 실천력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책임질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중지된다.

4조 (회원의 관리)

-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회의에 대한 의사개진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제반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알 권리와 이에 준하는 사냥으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3)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기구에 대하여 100인 이상 서명한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 수리, 결과를 통보받을 권리를 가진다.
- 4) 본 회 회원의 기타권리는 총여학생회칙의 관련조항을 따른다.

5조 (회원의 임무)

-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 회를 수호할 임무를 가진다.

6조 (기구)

본 회의 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자치 활동을 올바르게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학생 총회, 총(부)여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 단대여학생회로 구성한다.

2장 여학생 총회

7조 (구성) 여학생 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총여학생회장으로 한다.

8조 (권한)

- 1) 여학생 총회는 여학생회칙의 전면 개폐 및 여학생 단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이를 논의, 결정한다.
- 2) 여학생 총회는 총(부)여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권과 탄핵권을 가진다.

9조 (소집) 여학생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여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총(부)여학생회장, 운영위원회 및 전교 여학생 대표자 회의 또는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여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여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3) 여학생총회의 소집은 4일전에 공고한다. 단, 2항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10조 (의결 및 탄핵정족수)

- 1) 여학생총회의 의결은 전체 회원의 1/15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2) 총(부)여학생회장에 대한 탄핵결정은 전체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장 전교 여학생 대표자 회의

11조 (지위)

전교 여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전여대회)는 여학생 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12조 (구성)

전여대회는 각과 여학생회장, 여부학생회장, 여학생부 부장, 각 단대 여학생회장, 위원장, 총여학생회장, 총부여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과에 주체가 없을 때는 여연장까지 포함한다.

13조 (의장)

- 1) 의장은 전여대회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전여대회를 대표한다.
- 2) 임기는 당해 3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3) 의장은 총여학생회장이 겸임한다.

14조 (소집) 전여대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1) 정기총회는 매학기초와 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재적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 및 총여학생회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15조 (업무)

1. 전여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사한다.
 - 1) 본 회의 활동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결정
 - 2) 회칙 및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안 통과
 - 4) 총여학생회의 부서장 인준

22조 (선출)

총(부)여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시행세칙에 준한다.

23조 (신분보장)

총(부)여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5장 운영위원회

2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여학생회장, 총부여학생회장, 단대여학생회장, 단대여학생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총여학생회장으로 한다.

26조 (업무 및 권한)

- 1) 본 회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2) 본 회의 전체 예산 및 결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편성하고 전여대회에 제출하고 업무 및 재정결산 보고를 행한다.
- 3) 회칙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갖는다.
- 4) 여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5) 기타 운영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6) 전여대회 소집이 어려울 시 회칙개정 등 중요한 사항 의결
- 2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 1) 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연다.
- 28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6장 집행부

29조 (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30조 (구성)

- 1) 집행부는 총여학생회장 및 총여부학생회장과 총여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부 부장으로 구성되며 각 부는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 2) 각 부의 부장은 전여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31조 (체계 및 업무)

- 1) 총무부 - 회계와 각종 회의에 대한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 2) 기획부 - 운영 및 행사에 대한 기획을 담당한다.
- 3) 학술부 - 학술 활동을 통한 회원 교양사업
- 4) 생활문화부 - 대학내의 향락문화 척결과 건강한 문화보급
- 5) 여성사회부 - 정부의 여성관련 정책 연구
- 6) 홍보부 - 본 회 사업의 공개, 보고 및 선전사업을 수행한다.
- 7) 편집부 - 신문 발간 및 제반 출판 사업을 담당한다.
- 8) 조직 1부 - 과여학생회에 대한 사업지도와 내용공급
- 9) 조직 2부 - 과여부회장에 대한 사업지도와 내용공급
- 10) 정책부 - 총여학생회 사업 전반의 방향 제시와 정책 수립
- 11) 탁아부 - 비영리 민간 탁아소 지원 활동
- 12) 학자부 - 여학생들의 권익 향상과 교과과정 개편
- 13) 여연부 - 여연 연구 단위를 통한 과여연에 커리 공급과 내용지도

(부장의 권한 및 업무) 집행부의 각 부장은 전여대회,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과 아울러 양기구의 요청이 있을 시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7장 단대 여학생회

32조 (지위)

- 1) 각 단대 여학생회는 단대 전 여학생의 대표기구이다.
- 2) 각 단대 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의 산하 기구이다.

33조 (구성)

- 1) 단대 여학생회장은 단대 여학생회를 대표하여 총여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 2) 단대 여학생회장은 본 회칙 14조에 준하여 단대 여학생 전원이 선출한다.
- 3) 단대 여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5조 (회칙)

단대 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의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만들어 이에 따라 조직하고 활동한다.

36조 (업무 및 권한)

단대 여학생회는 단대 여학생 회칙에 의해 해당 단대 여학생회의 모든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8장 재정

37조 (재원) 총여학생회의 예산은 학생회비와 보조비로 충당한다.

38조 (관리) 재정관리는 총무가 담당하되 인출 및 집행은 총여학생회장의 결재에 따른다.

39조 (회계년도) 전 항의 회계년도는 2기로 나누어 각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편성한다.

40조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 보고)

1) 재정관리는 총무가 담당하며 인출과 집행은 총여학생회장의 결재에 따른다.

2) 각 단대, 각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조정하여 전여대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3) 예산을 집행할 시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배치하여 경비 일체를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9장 선거

41조 본 회의 선거는 총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10장 회칙개정

42조 (발의)

1) 본 회의 회원 200인 이상의 발의

2) 전여대회 대의원 1/2의 발의

3) 운영위 2/3의 발의

4) 위원장의 발의

43조 (공고) 개정발의안을 전여대회 의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7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44조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여대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5조 (공포) 전여대회에서 확정된 개정발의안은 총여학생회장이 학내 제반 언론매체를 통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조 (효력의 발생) 본 회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 (관례 및 시행세칙의 준용) 기타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기타 시행세칙에 따른다.

의사 진행 세칙

1. 정족수

선거 미실시로 인한 현지 대의원 부재등 사고로 인한 불참은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2.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

1) 안건 상정

2)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질의 및 답변

4)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

5) 토론종결

6) 원안에 대한 표결

3.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

1)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2)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3) 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전에 의사진행요원에게 신청하고 신청이 업슨 경우 발언 신청자 중 찬반 1인씩을 의장이 지명한다.

4) 발언 시각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토론 --- 20분 이내

질의 답변 및 보충토론 --- 5분 이내

의사진행 발언 및 기타 --- 3분 이내

5)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로 제한한다.

6)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중앙위원들로 구성되는 의사조정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7) 발언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질의 답변 -- 3인 이내

찬반 토론 -- 5인 이내

단,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자 1/2이상의 찬성에 의해 발언자 수를 늘릴 수 있다.

◎전교여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명단

총여학생회 회장 최윤진 (94 원예)
 총여학생회 부회장 심현지 (94 컴퓨터공)

인문대

인문대 여학생회장 장윤영(95 영문)	영문과 여학생회장 천미순 (95)
철학과 여학생회장 김수련 (95)	국문과 여연 장 성교선 (95)
불문과 타아 장 여창숙 (95)	고인과 여연 장 신선미 (95)
사학과 여연 장 이정미 (95)	

사회대

사회대 여학생회장 정옥경 (95 신문방송)	지리과 여학생회장 은지영 (95)
심리과 여연 장 엄진령 (96)	문정과 여연 장 남귀숙 (96)
신방과 여연 장 김은영 (96)	

자연대

의예과 여학생회장

공대

공대 여연 장 이현영 (94 컴퓨터공)	컴퓨터공학과 여학생회장 서연경 (95)
화학공학과 여학생회장 배혜정 (95)	공업화학과 여학생회장 조현자 (95)
염색공학과 여학생회장	

농대

농대 여학생회장 김애경 (95 농화학)	농학과 여학생회장 박선영 (95)
식품공학과 여학생회장 신선화 (95)	임학과 여학생회장 박선희 (95)
농생물학과 여학생회장 김현지 (95)	농경제 여학생회장 정효진 (95)
임공과 여학생회장 김수정 (95)	동물자원과 여학생회장 조수원 (95)
농기계학과 여학생회장 송희진 (95)	

사범대

사범대 여학생회장 조자경 (94 교육)	윤리교육 부회장 정경아 (95)
교육학과 부회장 최병연 (95)	일반사회학과 부회장 박정혜 (95)
국어교육 부회장 박지은 (95)	수학교육 부회장 최정숙 (95)
영어교육 부회장 배인향 (95)	지학교육 부회장 김미경 (95)
불어교육 부회장 구교현 (95)	화학교육 여학생회장 권윤주 (95)
독어교육 부회장 이정옥 (95)	가정교육 부회장 이주현 (95)
체육교육 부회장 정은미 (95)	역사교육 부회장 도경숙 (95)
물리교육 여학생회장 김춘희 (95)	

의대

의대 여학생회 회장 이정은 (93)